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는 스카이트레인역과도 가깝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학교는 엄청 크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건물들이 여러채 있지만 다 붙어있는 편이라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학교 안에 여러 편의시설(카페, 서브웨이 등)이 많아서 좋다.
수업	수업은 9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수업에 대해서 쉽게 와 닿게 설명하자면 학교 영어회화 수업과 비슷한 것 같다. 반은 첫날 듣기 평가와 각 나라 학생들을 섞어서 배정한다. 듣기 평가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 토익 영어 듣기랑 비슷한 형식인데 토익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다. 내가 속했던 반은 16명이었다. 그룹으로 4명씩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 각 주마다 큰 토픽이 있고 그 토픽을 주제로 그룹끼리 토론하고, 발표했다.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다. 말이 빠르시기는 한데 표정과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풍부하셔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항상 열심히 수업을 해주셨고 우리 반도 거기에 따라가면서 재밌게 수업을 들었다. 과제는 학교 측에서 준 바인더 속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오는 것이나, 저널을 쓰는 정도였다. 저널을 선생님이 내준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학교 측에서 나눠주는 바인더와 필기구 정도만 잘 챙겨서 가면 된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병을 챙겨 다니는 게 좋다.
Activity	Discover Vancouver: 벤쿠버의 유명한 곳, 가볼 만한 곳들을 탐방하는 활동이다. 활동지가 있어서 그걸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는 편이라서 그 장소를 제대로 보고 즐기기는 힘들다. 활동이 3시면 끝나고 그 후는 자유시간이라서 쇼핑을 하고 싶거나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다면 돈을 여유 있게 들고 나가는 것이 좋다. 야외에 계속 있기 때문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

	가는 것이 좋다. 카야킹: 카야킹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이다. 팔이 아프고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재밌고 풍경이 멋지다. 물이 많이 튀지 않지는 않는다.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아쿠아리움: 벤쿠버 아쿠아리움에 가서 관람하는 활동이다. MOV: 벤쿠버 박물관에 가는 활동이다. 벤쿠버의 역사에 대해서 둘러 볼 수 있다. 휘슬러 트립: 선글라스나 모자는 필수이다. 산에 올라가면 추울 수도 있으니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다. 모든 activity는 추가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내가 따로 기념품을 사거나 간식을 먹고 싶다면 돈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다. 첫 주에는 조금 더웠지만 갈수록 시원해졌다. 반팔 반바지와 함께 꼭 긴팔 긴바지를 챙기고 겔에 입을 겔옷 등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안전	생각보다 치안이 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어두워지면 시내에 홈리스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위협을 가하지는 아니다. 빈 교실에 귀중품을 두고 다니면 없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지갑 등 귀중품관리를 잘해야 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내 홈스테이 집은 학교와도 가까워서 걸어 다녔다. 홈스테이 가족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셨다. 집에서 지켜야 할 까다로운 규칙도 없었다. 아침도 차려주셨고 점심도 홈스테이 맘이 싸주셨다. 다만 저녁은 먹고 들어가면 먹고 들어간다고 말했고 집에서 먹으면 집에서 먹는다고 얘기했다. 캐나다인들은 에너지를 아끼는 편이라서 샤워시간도 짧고 빨래도 자주 돌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묵었던 집은 샤워도 아무 때나 해도 되었고 빨래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릴 수 있어서 좋았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주로 아침과 점심은 홈스테이집에서 제공한 것을 먹었고 저녁은 사먹었다. 아침에는 빵, 와플, 요구르트, 쥬스, 삶은 계란 등을 먹었고 점심은 거의 샌드위치였다. 가끔 점심이 맛없거나 부족하면 학교에 있는 팀홀튼에서 도넛과 iced capp(이거 정말 강추 입니다)을 사먹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나는 집과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 다녔다. 놀러 다닐 때는 주로 스카이트레인과 버스를 이용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compass card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zone1만 다닌다면 카드에 들어있는 돈으로 충분하지만 zone2,3을 가고 싶다면 추가요금이 붙기 때문에 돈을 충전해서 다니는 것이 좋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18만원	저녁, 음료수 등
쇼핑	약 39만원	기념품, 옷, 신발 등
여가	약 4만 5천원	뮤지컬, 영화, 아트 갤러리
기타	약 2만원	
개인지출 합계	약 63만원	
합계	약 248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첫 번째, 휴대폰의 경우 한국에서 로밍을 해가거나, 유심을 사가는 것이 좋다. 캐나다는 한국처럼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잘 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와이파이에만 의존하면 조금 불편 할 수 있다.(가령 놀러 갔다가 길을 잃었을 때)

두 번째, 나는 홈스테이하는 집에서 수건이나 세면도구 등이 제공되는 줄 알았었다. 그래도 혹시 해서 수건 조금과 세면도구를 챙겨가기는 했었는데, 그건 개인이 들고 온 걸 써야하기 때문에 꼭 여유 있게 챙겨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한국 음식을 조금 챙겨가는 것이 좋다. 캐나다 음식은 아주 짜거나, 혹은 밍밍하다. 또 계속 샌드위치만 먹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극적이고 매운 맛들이 생각난다. 현지에 한인마트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한국의 2배 3배 정도로 아주 비싸다. 또 홈스테이 가족 분들이 한국 라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먹고, 홈스테이 가족도 줄 용도로 챙겨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번째, 공연이나 영화, 전시회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화요일날 가볼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는 화요일이 문화의 날 같은 거라서 평소보다 싼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